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감성 멜로디로 영빈관 가득 채워

음악으로 채워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위기극복·청년·평화 메시지 담아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외신 출입기자 대상 신년 기자회견에는 감성적 멜로디로 구성된 가요가 영빈관을 채웠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장을 메운 음악은 '2018년 신년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데 특별한 역할을 했다. 기자회견장인 청와대 영빈관에는 오전 8시 55분부터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김민기의 '봉우리', 불여름가을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커피소년의 '내가 니편이 되어줄게',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그루베타 크루의 평화랩 '괜찮아' 등이 차례로 영빈관을 메웠다. 무대 가운데 설치된 대형스크린에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연설 영상과 사진도 함께 담겼다. 김민기의 '봉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

움을 받아들이고 저 멀리 있을 바다를 향해 봉우리를 함께 넘어가자는 당부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고 전태관씨를 추모하며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음악인 불여름가을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국민이 찬란한 내일을 맞이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선정됐다. 커피소년의 '내가 니편이 되어줄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에서 2019년 한 해를 보내겠다는 다짐으로 선택됐다. 특별히 20대 청년들을 위해 선곡된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는 생각한대로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또 상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에서 상상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도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엔딩 곡으로는 대학생 래퍼들로 이뤄진 힙합그룹인 그루베타 크루의 평화랩 '괜찮아'가 흘러나왔다. 평화를 주제로 청와대와 함께 만든 곡이라고 한다. 올해는 우리 삶 속에 '평화'를 더 깊게 새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선정됐다. 이 곡은 청와대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김동률의 '출발', 윤도현의 '길',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흘러 나왔다. 2017년 8월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청와대 영빈관에는 가수 박효신의 '야생화', 윤종신·곽진언·김필의 '지친 하루', 이적의 '걱정말아요 그대', 정인의 '오르막길' 등 가요 4곡이 흘러 나왔다. /뉴시스

# '성희롱 가사' 래퍼 블랙넛 1심 징역형... "추가 피해 가하고 범행 뉘우치지 않아"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 래퍼에 성적 모욕 가사 작성 혐의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성적 희화화한 다음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가 고소 이후에도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김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모

욕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거론하며 음란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차례 키디비를 모욕하는 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만 적용했다. /뉴시스

# 신년맞이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공연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이달 27일...정읍시민 50% 할인혜택으로

2019년 신년맞이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가 이달 27일 오후 3시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연예계의 대표적인 클래식 마니아로 알려진 개그맨 김현철이 지휘 퍼포머로 변신해 실력과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함께 대중에게 익숙한 유쾌한 클래식 곡들을 들려준다. 신년맞이 공연만큼 공연은 어느 때보다 더 웅장하고 다양한 무대로 공연장을 찾는 시민과 클래식 마니아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현철의 유쾌한 지휘퍼포먼스와 해설, 오케스트라 단원 40명의 아름답고 웅장한 연주, 성악가와의 협연, 관객과 함께하는 연주 등이 준비되어 있다. 공연 관계자는 "방학기간을 맞이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유익함을 선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좋은 공연관람을 시작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즐겁고 유쾌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많은 이들의 관람을 당부했다. 관람료는 전 좌석 1만원이며, 정읍시민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즐



길 수 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14일부터 25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올해 두 번째 앙콜 공연을 하는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는 2017년 연말 첫 회 공연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문화유산 3D 프린팅 데이터' 공짜로 퍼가세요

입체 인쇄용 문화유산 자료를 무료로 쓸 수 있게 됐다. 10일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3차원 입체 프린팅 데이터를 국가문화유산 포털(heritage.go.kr)을 통해 개방했다. 지진과 화재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상황을 대비해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3D 프린팅 데이터를 제작하고 있다.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공개한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하도록 다양한 활용수요에 맞게 가공해 변환한 자료다. 문화유산 3D 프린팅 자료 등 데이터를 제작하려면 비싼 3D 스캔 장비와 전문기술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직접 제작,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적 제122호 창덕궁, 보물 제141호 임신서기식,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 등 모두 186건 1196점이다. 3D 프린팅, 모델링(모형화), 영상, 스캔 원본 등 다양한 유형이 섞여 있다. 국가문화유산 포털 검색을 통해 '한국의 세계유산' '교과서 속 문화재' 등 주제·문화재



별 검색과 미리보기도 제공한다.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방문하면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100MB가 넘는 대용량 데이터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posjh@korea.kr)으로 제출하면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2018년부터 3D 프린팅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문화유산 교육보조재 제작, 홀로그램·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전시·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문화재 멸실 부분 복원모형 제작 및 학술연구를 해왔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